

자세 드러보니 자기의 방문을 열나고 할 일다 감안이 생각을 한다  
지금 누가 와서 방문을 열나고 하나  
나가서 문을 열고 보았다 이는 다르 사람이 안 일다 곳 묵한 아 일다 이상히 여겨서  
하는 말이

제가 엿지해서 왔나  
인해서 못기을

당신이 누구인데 엿지해서 여기를 왔소  
묵한 아는 냉소를 하며

로형이 노이 불탈이가 아니시오 내가 시방 장가를 드는 사람이 매 불리의 안해  
가 되려 하든 것을 아지 못하오 로형은 할일이 업기로 해서 내게 잇는 혼서들도  
적해 내기를 생각하오 로형은 씩씩듯 하지 마오 아모리 혼서를 도적하려 해도  
내 몸에 잇는 것을 엿더케 하려고  
노이 불탈은 묵한아가 자기의 마음 속에 잇는 것을 모다 알고 말하는 것을 보고 냉  
소를 하며

네가 하는 일에 내게 관계가 업지 마는 나는 평생에 한가지 모병이 잇서 불  
량한 놈을 치기을 가장 조하함으로 해서 너 갓 혼놈은 늦쳐 보내지 못할 터이니 너  
는 내가 갓 악한 놈 죽이는 것을 보아라

상우에서 육혈포를 집어들고 묵한아를 향해서 한번을 노았다 묵한아는 별안간  
피하다 못해서 맞고서 너머진다 노이 불탈은 깃버서 묵한아의 몸을 뒤져 보나 혼  
서는 업다 또 생각을 한다

이것을 엿지해야 조흔가 저놈이 여기를 죽은 것을 경찰서에 서알면 모른체  
할니가 업는데 내게 분명히 징거 할 물건이 업스니 엿지하여야 할구

전신에 삼을 흘리고 눈을 찌서 보니 죄잔한 등불이 삼박박 한다 엿지 묵한아  
의 종적이 잇스랴 이는 자기가 괴안국에 올 갖다가 온 것이다 시계를 내어 보니 한  
시 삼십분이 다 감안이 안져서 상량을 하고서 거문옷으로 밧고 아 입고 창을 열고  
길거리로 내다 보니 고요하다 몸을 날려서 내려와 조용한 골목으로 우편국 앞  
헤를 와서 보니 문우에 전등은 발근데 멀리 순포가 오혀 려섯다 몸을 움치고 뒤  
담으로 올라가는데 그담이 한길이나 넘고 등근창이 잇는데 문을 닫지 아니하  
얏다 변소인 줄 짐작하고 괴여 드러가 보니 사람은 하나도 업다 곳 총사사의 방으  
로 가서 문에서 드러 보니 아모 소리도 업다 생각을 한다

이문을 엿더케 열고 드러갈가  
문을 흔드러 보니 저절로 열린다

올라 원래 장그지를 아니 하얏구나  
드러가며 별빛에 비치 보니 사람은 하나도 업다 감안이 생각이 다



어디다가 둔것을 분명히 아지 못하니가 차례로 뒤여보아야 할것이다  
죽기에서 전등을집어내서 빗쳐보니 누어자는 자리엿해 큰가죽동하나히있다  
혹그속에 잇는가해서 열고보니 의복뿐이요 요긴한것은엿다 인해서 전갓치담  
아두고 몸을 돌쳐서서보니 가족상자두개가있다 모다여러보아도 혼서는엿다  
상자를전과갓치 해서두고 마음에 조금해서 벽에걸인 종을쳐다보니 밭새로  
네시가지났다 엇지하여야 조홀고하며 생각을한다

저상자가 밭그로보기에는 저릿케큰데 속은김지가 못하니 혹그속에 한칭이  
또잇지나 아니한가 다시볼것이다

상자를 다시열고 담긴물건을 모다집어내노코 불노빗쳐서 보니 또한칭이 잇  
는것갓다 손으로 자서히만저보니 은혈노장근것이있다 어기고 여러보니 그  
속에 처부책이잇고 책틈에다가 요긴한문서를 세여두었다 노이불탈은 유심  
이그문서를뒤져보다가 혼서가 잇는것을보았다 자세보기을 한참을하나 죽금  
도 틀넘이엿다 반가와서우스며

인제는 모두걱정이 엿슬러이다

단단이 감추고 상자에것을 여전이해서 물건을담어 전과갓치해서노코나니다  
섯시를첫스되 날은 오히려 박지안코 감감하다 사면을살펴보나 혼적은엿다  
그제야 방문을나서 드러오든곳으로 내려와서 여관으로도라가 창으로괴여드러

가보니 동편하늘이 허미하게 발가온다 다행한것은 이일한것을 안사람이엿는  
것이다 인해서 문을닫고자다

노이불탈은 자다가새여서보니 열시나되얏다 생각을한다

인제는 묵한아가 겨여극난이와 혼인을 언의때에 어디서 엇더케 한다는것  
을 명백히 듯지를못하얏스죽 자세알아보고나서 매불리를 차저가야하갓다  
주저하기를 여러날을하면서 각처로단여 한유하기를 몇칠을 하는동안에 소문  
을드러보니 묵한아의혼인이 되게되얏다 한다 또소문을드러본즉 유복으로가  
서 성친을한다하니까 노이불탈은 생각을또해본다

무슨새닥으로 유복으로가서 성친을한다하는고 을치 일전에 자유권을빼  
앗갓다는 계집을피해서 가려는것이로군

다시알아보기를 적실이하니 저의혼인하는날이 겨우 사흘쯤 겨하얏다 또생각  
이다

인제는 다시지체를 못하게되엿고나

여관주인을 불니서 밥갑슬 제음해주고 가방을가지고 자행거를타고 오달윤  
으로가서 괴차를타고 성포이로가니 한점동안에 이르렀다 매불리가 잇는곳을  
무러보니 오리나된다 또자행거를타고 차저가서 문을열나하니 안으로서 사람  
이나오더니 문을연다



(노이) 이 집주인 매불리가 집에잇소

(그사람) 당신은 어디서오셨소

(노이) 나는 매불리와 지리지우 노이불탈이니 서극가로서보라왔소  
(그사람) 우리주인이 병이 재로나서 오후에 친구와 공원에를갓지요 당신이멀  
니서 오셨다하니 이리드러와서 안지시오 오래지아니해서 드러오갓지요

노이불탈은 가방을들고 드러가서보니 삼간집인데 한간은 찬간이요 한간은객  
실이요 자는방은 루상일다 객실에 안져서보니 버려노은것이 모다 검박하다  
다섯시나되니사 사람이와서 문령을누르니 매불리가 드러오는것을알갓다 노  
이불탈은 압흐로나가며

잘잇섯소 오래동안을 만나지못하얏소

매불리는 천만뜻밧게 노이불탈을보고 반가운마음에 손을잡고

언제와서 기대리고잇섯소

(노이) 온지는 한참되오

매불리는 노이불탈의손을 인하여잇설고 루상으로올나가서 오래못본인사를대  
강하얏다

노이불탈은우스며

우리가 한가히 이야기할틈이 업슬듯하오

(매) 무엇이그리 긴급해셔 이갓치하오

(노이) 내게 긴급한사정이잇셔 오를가야하갓소

매불리는우스며

무슨 긴급일인지는 아지못하나 내가못가게 붓슬터이요

(노이) 내가 다른일이아니요 당신을위하노라고 하는일이요

(매) 내가 무슨일이 잇기에 나를위해셔 한다고 하는말이요

(노이) 내가 당신을위해셔 골몰한지가 밧셔 한달이나되오

매불리는 이상이역이며

그게 무슨말이요 답々하니 가르쳐주오

(노이) 당신이 엇지해셔 우편국서괴를 내버리고 여기로와셔잇소 명예를위해  
셔 혐의되는것을 멀니피한 의사이요 엇지해셔 일개인의 명예를 무고히 남  
의게 손상한것이 되엿소

(매) 이일을 엇지알앗소 무르니말이요마는 그놈과 잠시변백을 하얏소마는

그놈이 원치간할하기가 이상하기로해셔 고만두엇소

(노이) 이말이 가장 후한듯하오마는 너무 진실한탓이요 목한아가 무슨싸닥으

로 당신의 명예를 손상케했소 이것이 요긴한문제요

(매) 그것은 내가마음에 두일이업소 제가 무슨피상한짓을 하든지 내가알은



체해서 무엇하오 다만 한되는것은 내가 남의게 한점도 유의한일을 못해서 남이 날보기를 용열하게 아는것이 가장귀맥히는 것이요

(노이) 그것은 정당한언론이 못되오 나로보면 사람이 세상에나서 리가 되든 지 못되든지 물논하고 모다 남심에서 나오는것이요 그러하나 그것은 무퇴 배는 아니라고하오 남의 권리를 침해하고 제욕심을 채오는것은 던하에 용 셔치못할 물건이라하오 말이 천근 되는것을실고 껌이가 쌀하나를 지고가는것도 모다 각기담임한 일분자가 아니겠소 우리는 다만 국민의무를 버리지말멸 보던지하에 누가감히 업슨역이겠소 그대는 엇지해서 부패한말을 하오

이한방말에 매블리는 웃고만있다

(노이) 그대의 심사를 내가알겠소 남이 그대를 그른일노 지목을할지라도 그대는 우슈운 말이든지 참말이든지 변백도 할것업시 웃을셀치고 가는터가 아니요 지금와서는 뉘웃침이 업지아니하리다 올소 그러치안소 매블리는 삼씩놀나며

이일을 그대가 엇지알았소

(노이) 내가 그대의 원역한것을 변백하려 한것이 이제와서는 그대의 혼인이 완전이 될것을 누가알았겠소 묵한아가 내일하오제시에 격여극난과 성천하

라유욕으로가는 터이니 우리가급히쫓차가야 일이되겠소 격여극난이는 엇 덧케해서 그대를 저바리지 아니하는일을 내가 가진것을보면 알터이요

노이불탈은 매블리의 일을위해서셔 극가로와셔 조사한 정형을말하는데 묵한 아는 엇덧게 흉악한놈으로서 거진말을 지어셔 회방한일이며 처음왔슬적에 학교동점의게 들든말과 교사모양을하고 묵한아를 가셔보든말이며 우편국셔 괴로 가셔잇셔々 슈지를사셔 편지를 차진일이며 묵한아를 뒤따라가셔 화장 계집의잡에가셔 싸호는말을듯고 나오다가총마진곡절이며 밤중에 우편국에을 가셔 혼셔를도적해서온 일장을말하얏다 매블리는듯고나셔 분한마음에 뛰여 이어나며

간약한 도적놈이 갈사록 심하구나 내가 이제와셔 그놈을 그져두게되면 내 명에만 손상되는것이아니라 전체학생의게 관계가 될터이요 나는 학계에 죄 인이될것이오 전에내가 참을인짜로 목적을삼은것이 대단이 잘못된일이니 이후부터는 방침을 곳치겠소

(노이) 그대성질이 원래 관후한것이요 그러치아니면 누가참을인짜로 목적을 삼겠소

(매) 참 맥냥한말도잇소 언제 격여극난이가 내게 편지한장을 보낸일이 잇 셋단말이요



(노이) 그대가 진짜 동통하기가 지극하오 편지가 우편국에를 가지 아니하면 어  
디든지 전하는법이잇소

매불리는 황연이매다라  
을소 로형곳아니면 내가 저의 농낙속에 들변하얏소 참늘근놈이 흉악도하오  
두사람이 열두시짜지 말하다가 한재리에셔자고 잇흔날 일직이러나셔 소세를  
하고나셔 매불리는 노이불랄다려

그대는 연일신고하였소 우리집에서 이를만 편이쉬시오 저곳에가서 할일은  
내가가서 보려하오

(노이) 참쫓소 나는 여괴서 하로만 지체해서 내일은 괴차를타고 오달윤으로  
도로갈터이요

붓썸한나로 매불리를쥬면서

이것이 징거물이요 그계집의 혼서가 이속에잇소

매불리는 쥬는것을 거두어가지고 총총이작별을하고 마차를타고 괴차정거장  
으로오니 반시동안을왔다 차표를사자 맛침 괴차가 르러왔다 괴차에올나서  
오달윤을향하고간다 이때에 매불리는 괴차사자를 가서보고 말을한다

내가 한가지일이 잇서서 당신과 상의하라왔소

(사사) 예 무슨일이온잇가

(매) 내가 요긴한일이잇서서 마력돈에가서 차를내리려하니 그것케 할도리  
가 잇겟소

(사사) 종로에서 정거는 못할일이나 당신이 긴한일이있다하니 내가 괴계를관  
활하는 사람의게 부탁해서 마력돈에 이르거든 한초동안만 지체하라구 할  
터이니 당신은 뛰여내려가시오

미불리는 깃버하며 스스 의게 고맙다하고 내릴곳을 기대리고잇다원 래마력돈  
에셔 겨여극난의집을 가려하면 오달윤으로 가니보다 삼십리나 갓갑다 미불  
리의생각에 한점동안에 가게되면 만무일실 이연이와 그것치 못하면 쫓차가  
도밋지못할리라히셔 이갓쳐흔것이다

상무학교에셔 잇때에 방학이되야 학생두사람이 짐으로가는길에 마차를타  
고 마력돈을 지날때에 맛참 괴차가 지나간다 두학생은 마차를물고 가며보니  
괴차괴도겟해 사람한나히 넘어졌다 학생은싱각하거를

저사람이 필연 괴차에셔 썰러진 사람인데 죽지나 아니할였나 우리는 가서  
볼것이다

너머진사람은 누구인고하니 미불리다 속담에 이르기를 마음이 급흔때에는뜨  
거운죽을 먹을슈업다는 말과갓치 저괴차가 신속히다라나는판에 타고가든사  
람이 뛰여내리는것이 엇지위험치 아니할라 잇때에 미불리는 급흔마음에 조



심을 아니하고 놀흔데서 나진곳으로 뛰다가 밋그러져서 내리니 자연 혼절을  
할것이다 々 형이 마차타고가는 학생이 와서 보니 미블리다 차부를식여 근처  
사람의집에가서 물을어다가 학생의게 잇든구급하는 환약을타서 먹인지한  
참만에 점々매어나서 학생의게 감사할말을한다 학생은못는다

당신은 잊지히쳐 위험한노릇을 하셨소

[미] 내가 남의게 의뢰히 명예손상하는일을 당하고 설원하기를 위히쳐 오  
날적점전에 석극가예를 가려할것이 육속불달이 될뿐아니라 두분만 아니드  
면 죽을번하였소

(학생) 스정이 그러하시다하니 우리가 마차를타고 가든터인즉 당신을태워셔  
가시게하리다

미블리는 감스흔말을 다할슈업다 두학생은 미블리를붓드려쳐 마차로올니고  
채를쳐서 々극가를향하고간다 슈리는 지나쳐 적은산이잇고 산우에도 길에잇  
스며 산아래도 길이잇는데 아래길이 옷길노간이보다 녹철리가 멀다 학생은  
빨나가기를 위히쳐 곱비를쳐쳐 산웃길노간대 말이 내려가기를 급히하다가  
말과 사람이 모다번듯쳐져 썩러졌다 미블리는 아모일이업고 학생하나히대  
리를상히쳐 요동치를못한다 학생이 미블리의일을 그릇할가염녀하여 차부다  
려하는말이

너는 다른마차를 어더쳐 대리상환사람을 태와가지고 병원으로가서 잇스라  
나는 이양반을되시키고 석극가짜지 대려다두고 즉시도로올터이다  
차부가 대답하고 마차를어다가지고 병원으로갔다 학생환사람은 미블리와채  
를쳐쳐 적여극난의집에 당도하였다 미블리는 학생의게 천만번이나 감사함을  
말하야 병원으로 돌려보내고 적여극난의집 문을열나한다

적여극난고랑이 집에잇소

(하인) 당신이 오섯슴이다그려 오래 뵈옵지못하였슴이다 성포이로 이사를가  
섯다하니 정말이온잇가 잊지히쳐 저리파리하섯소 내가당신을 생각하기를  
만히하였슴이다

[미] 내가 긴급한일이잇서 々 혼가히말할새가업소  
하인은우스며

내가 알기를 당신이 요긴한일이잇서 온것을짐작하였소 당신의 머리에쌈  
난것을 내가보니싸  
미블리는급히쳐

적여극난고랑이 집에잇고 업는것만 여쭙말을하고 다른것은 못지마오

(하인) 주인과 슈모제셔는 집에게시지요

[미] 적여극난고랑말이요



하인은또우스며

정말 몰나서 날다려와서못소 한시전에 묵한아가 장가들야구 디려갓지요  
미블리는 이말을듯더니 두눈을뚝바로뜨고 뒤로잡바졌다 격여극난의 부모는 급  
히나와서 구혀서 배인후에 무슨연고인지 무러보았다 미블리는 전후사정을낫  
々치말았다 격여극난의 부모는 묵한아가 이왕안히가 있다함을듯고 놀나서  
참흥악호일도 잇구나 너는무슨 징거할것이 잇나냐

미블리는 혼셔를집어내서 격여극난의 부모의게보게하였다 격여극난의 부친은  
다시놀난다 격여극난의 모친은

여보 저리놀나기만 하지말고 급히쪄차갈것을 생각하오 아모조록 쪄차가서  
대려다가노코 다시의논할것이요

[미] 기차가 쪄났스즉 설혹쪄차가도 미지못할터이니 속디전보를 오랄윤으로  
히셔 저의로 가지말고 도로오라고 할것이요

격여극난의 부친은

그말이 오르니 니가 시방가서 단여오겟다

말을하고 급히나갔다 격여극난의 모친은 미블리다려

만일 전보를보고도 오지아니하면 엇지하여야 쪄것나냐 너의고부는 놀고뚝  
々지못히셔 왜할사위를 엇지못하고 저런뜻밖에 일을당하고도 쪄타고 생각을

홍난지

[미] 을는지 아니을는지 알수는 업지요만는 오드래도 저하는것만보고 편도  
룩하라지요

이말만하고 다시말이업다 격여극난의 모친은

엇지히셔 다시는말을 아니하는나

한참잇다가미블리는

회전이 오기를기대리고잇소 만약 아니오면 엇지하시려오 너싱각에는 전차  
를라고 쪄차가니만 못할것갓슴이다 이전차는 개인이라고 단이는것이다

격여극난의 모친은

네말이 을흔말이다 전차로가려며는 차비가 을마나 될는지 너는하인을대리  
고가서 단여오면 줄터이다

[미] 돈은 니게잇슴이다

격여극난의 모친은 하인을불너서 미블라를 싸라셔 전차행리로 가게하였다 미  
블리는 차비를무러보았다 전차행리에서 대답하기를

조흔기계를 쓰려하면 슝빱금은 주어야할것소

[미] 차비다소를 말할수업는터이즉다 만기 계부리는사람이나 수단잇는사람  
이 가게히셔 빨나나가도록하오



행리에서는 대답을 하고 차를 준비하였다. 미불리는 을나안져서 괴관을 운동하  
미바를과갓치 빨리 오달음으로 향하여 일각이 못되야서 정거장에 이르러보니  
괴차는 발셔져났다. 미불리는 할일업서 괴차정거장 사사를차져보고  
셔극가에셔 전보가와셔 유숙으로가는 남녀두사람으로 가지말나고 할일이  
업섯소

(사사) 괴차가 계우당도할때에 전보가왔지요. 그남녀두사람은 유숙으로 성천  
항라가는 사람이라 합디다. 전보그녀자의 집에서 보낸것인데 남자의말이  
전보만보고는 아니갈슈가 업다고 할면셔 회전을합디다.

미불리는 그말을듯고 도라셔 올때에 괴차가떠난지가 할시반이나 되얏다. 미  
불리는 전차괴계를부리는 사람다러

우리가 속력을다히셔 쫓차가면 성포이에서 만날듯할오

괴관슈는 전차를속력으로 운전히셔 할시동안에 성포이로갓다

적여극난이는 미불리의게 세번째 편지를보치뒤로는 종일눈물노 세슈를하며  
지내다가 혼일날이 갓가와오는데 저의부모는 화락한괴석으로 부중싱남중생  
녀라 할건마는 적여극난은 저리에누어셔 고등음으로 의약으로 치료를할면셔  
어셔차복항기만 바라나 상감하는 정형을 말할슈가 업셔 죽기만 기대린다  
항로는 묵한아가와셔 갓쳐유숙으로가서 성천을하자고하니 이날은 혼일날이

다 적여극난의 모친은 적여극난의마음이 좃치못히할가히셔 조흔말노 달낸다  
적여극난이는 도로혀 아모랏치아니 할모양으로 떠날때에 울며 저의부모의게  
항직을하고 래연이 마차에올나간다. 묵한아는 만족히 생각하는것이 적여극난  
이가 저의 나히 늘근것을 혐의함이 업는것을 깃버하나 길에가면셔는 말을  
아니한다. 적여극난이도 잠々하고 말을아니하는 것을보건대 로여하는얼골도  
아니오 깃버하는빛도 업는것갓타다. 묵한아가 엇지 적여극난의 마음속에 먹  
은일을 알슈가잇스라 괴차정거장에 이르러셔 괴차를타고 가기를 일직썸되야  
셔또정거장을당도하니 이곳은 오달음이다. 한사람이 손에조리한장을 들고드  
러오며

당신이 묵한아시오

(묵) 예 그러할오

(그사람) 누가 적여극난이시오

(묵) 그것은 알아셔 무엇할려할오

그사람이 적여극난을 가라치며

당신의 집에서 전보가왔는데 두분다려 유숙으로 가지를말나고 할얏소

묵한아는 전보를바다보고서

이상한 일도있다. 우리가 유숙으로 성천항라가는데 엇지히셔 가지를말나고



하는고 전보에 흥기를 그대다러 내가 가는것을 만류하라고 흥것이오 날다  
 러는 가지를말나는 말은업소 이전보를 저사람의집 들근이가 노은것인데런  
 하에 쌀을남을주어노코 다시전보를히셔 가지를말나는 도리가잇소 나는결  
 단코 그말을 듣지아니홀러이니 그대가 나를가지못하게 할량이면 가셔알아  
 보시오 묵한아가 사람을썩여 가지고 도망을홀다하나 무엇이러하나 드러  
 보오

있때에 겨여극난이는 엇지할줄을 아지못홀다 그사람은 묵한아가 이갓치 회  
 답하는것과 또겨여극난은 아모말도아니하는것을 보고

그러하면 고만두시오

의차를 썩나려하고 나간다 묵한아는 차우에셔 동정만보고잇고 겨여극난은잠  
 々하며 말이업다 々섯시가 된이셔 성포이에 이르렀다 이성포이 정거장은 상  
 무가 흥왕홀곳인고로 정거흥기를 홀시삼십분동안을 흥는터이다 묵한아는 겨  
 여극난다러

우리는 창밖그로 나가셔 산보도하고 이곳경치도 구경합시다

겨여극난은 모른체홀다 묵한아는 무류홀모양으로 혼자나가며보니 신문과는  
 사람이잇다 묵한아는 신문한장을 사가지고 창밖게셔 저세볼때에 날이어들기  
 로 신문을들고 차안으로 드러오며 겨여극난과 갓치보려홀드 겨우 문에를드

러셔며보니 겨여극난을 불슈가업드 삼씩놀나서 창밖그로나와셔 각쳐로차지  
 나 어디가 그림자나 잇스라 호리갓흔 묵한아로 원숭이가 싱강을 먹은듯이싱  
 각을호고 드시싱각을호나 도리가업셔 々 드만사면을 돌아보며 어린듯이셔 々  
 기대리는 동안에의차가 썩나려홀드 묵한아는 사람을식여셔 저의의흥구를가  
 저다가 휴게소에노코 눈이싸지도록 바라보며 잇스니 의차는 유혹을향하고갓  
 드이리저리단이며 못는드

절문녀자하나히 의복을엇더하게입고 어디로 가는것을보앗소

한사람이 대답을홀다

저길노 간지가 밭혀홀시나 지낫소

묵한아는 그사람과 작별을호고셔 급히그길노 썩자거나 겨여극난의 종적은불  
 슈업드 또날이어두어졌드 엇지할슈가업셔 々 갓드온 려관을차져셔 자고내  
 일엇지 하든지 하려히셔 사면으로 찾는지음에 홀련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들  
 린드

여보 묵한아선싱

누가불어나호고머 리를도라보나 길에스름이 원치만히단이는고로 누가부르는  
 지물나 셔두련 々하며 찾는판에 썩부르는소리가 들니는데 음성은 심히익드  
 소리나는곳으로 썩차가셔보니 원래 드른사람이아니라 우편국에 잇든셔괴일



드 묵한아는 반기면서 급히압호로가셔 손을잡고 었지히셔 여괴잇소

셔괴는 님을싸라셔 두어마디 인사를응며 대답이다

당신은 유혹으로가셔 결혼을아니하고 었지히셔 여괴잇소

〔목〕 번리는 혼인날이 님일이더니 드시정하기를 일주일후에 응려고했소 이

곳에셔 볼일이죽금잇셔々 몇칠동안을 지체하여 갈터이요

〔셔괴〕 그러하면 여관은 어디다정하였소

〔목〕 아직정치못했기로 시방정하려함오

〔셔괴〕 그러할량이면 나잇는여관으로 가는것이 었더함오

〔목〕 참 조흔말이요

셔괴는 묵한아와 갖쳐여관으로와셔 주인다려 제역발을 가져오라하여 두리셔 로흔담을응여가며 술을먹노란이 피차간에 모드취혼모양이드

〔셔괴〕 무슨볼일이 잇셔々 여괴셔 지체를응게되며 고랑파는 었지히셔 동행을

아니했소

묵한아는 괴석이조치못혼 모양으로

당신은 드른사람과는 드르기로 님가실정을 말하리드 님가시방 결혼하려는

너자의 일홈만듯고 사모히셔 혼인을 정하얏지만는 피차에 셔로보지는 못

했더니 오날 갖쳐여괴와셔는 내가신문을사노라 차에를 님려간동안에 틈을타셔 도망을했는데 어대로간지 알수가 업소구료

〔셔괴〕 참 괴상한일도잇소 암아 당신의 나히 늘근것을 시려셔 도망을했나보

구료

〔목〕 그것은 그러치아니한것이 만약니가 늘근것을 시려할량이면 었지히셔

당초에 허락을하니가잇소 님가 그계집의 동정을보니셔 필경박박트르 친흔

사람이 잇는것을 셔의부모의게는 말할수가업는 일이잇는것갓함오

〔셔괴〕 참 이상한일이요 제가 어디로 드라났단 말이요

묵한아는 눈살를 찌푸리며

님말이 그말이요

두사람이 또한담을응는동안에 하인이 드러와셔 셔괴드러

아모총사사가 연극을 구경하조고 청하며 말셔 연극장으로가 셔기대리심이

드

셔괴는 이러나며 묵한아드러

나는 잠간갓드와야 함겟소

〔목〕 어셔가셔 보시오 우리는 또님일말합시드 나는 로형드러 돌보아달나고

할터이요



적여극논이는 어디로갔는고 저의집 문을나서 바라보니 곳곳마다 모두 못칠 만흔 싸하나 드만 괴회가업서사 여디까지 온것은 목훈아가 죽음을 것홀써나 지 안키로해서 죽을틈이 업섯드 오칼윤애와서는 조기의집에셔은 전보를바드 보고 곰々싱각을 해서보나 엇지할도리가 업다가 돌녀생각이다

이전보를 우리집에셔 보내신것이 분명한즉 나는엇더케든지 몸을빼쳐셔도 라가도 아모썩지람은 업슬테다

주의를정하고 잇다가 성포이에와서는 목한아가 나가셔 신문사는것을보고 틸 을타셔 괴차겅호로 내려서사 사람충중을 향하고다라나며 머리를도리켜셔보 니 목한아는 신문을보고잇다 급히거러셔 몇거름을 다라나며 굵의사사 도라 서가니 날이강감하얏다 죽을심을 다쳐셔 압호로 가기를다섯점동안을 갓스나 몇리를 간지알슈업다 성광에보니 밧과나무가 만흔것이 분명한 시골모양이다 여디가 성포이시장과 을마나되는고

머리를 돌녀서 불빛치는곳을보니 심히멀다 몸이피곤해서 한거름도 다시가지 못하고 수건을싸에 쌀고 길가에안져서 쉰다 찬바람은 빼에사모치고 배속은 궁하기가 비할데업다 도망할때에 급히오노라고 외투까지 괴차에다가 버리고 왔다 오분동안이나 쉬다가 찬바람이 침노해서 몸이셀니고 배가곰흔것을 견 델수가업서셔 머리가또압하온다

여디만안져 잇스면 엇지하나 시골집이라도 차져가서 하로밤이나 지내고나 서 다시엇지할것이다

전과갓차 이려서사 압호로향하야 더듬々々 가다보니 등불이 빗친다 차점々 사 등광을향하고 가기를 한참을하얏다 적은집 하나가 잇는데 사면이 모다올 타리다 적여극난은 압홀차져서 문을열어달라고 하얏다 한참잇다가 안에서못 는다

기쁜밤에 누가와서 문을열나하오

또한동안잇다가 로인이나와서 문을열고서 적여극난을보더니 놀나며웃는다

고랑은 어디서 오시기로 이밤중에 어대로 가심잇가

(적여) 내가 뜻밖게 변을만나서 원수를피하노라고 여디까지왔소 맥에서 하로 밤을 비러자고 가려함이다

로인이 적여극난의 아래와 우를홀터보며 말하는것을듯고

그리하시지요 이기쁜밤에 어디로 가시겅슴잇가 그러나 짐이 루츄해서자고 가시라기도 어렵습니다

(적여) 천만에 말씀도 하심이다 한데서 자는것만 면해도 고맙습니다

로인은 별말을다한다하고 적여극난을 객당으로청해서 드리안치고

내가 드러가서 우리마누라와 쌀을 내보내셔 대접케하리다



안으로 드러간다. 겨여극난이는 그 때에야 몸이 녹아서 썰기를 진정하고 그 집을 살펴보니 시골집이라 정결치는 못하다 사람의 발자취 소리가 들리더니 늘근 마누라와 계집아가씨가 나오는데 모든 배움을 입었드 겨여극난의 손을 잡고 아래와 우를 보더니 마누라가 우스며

저 고랑이 참 미인이로군. 저 갓흔인물은 나는 처음 보는 것이드. 여보시오 어디서 오시며 엇지 해서 이 밤중에 분주이 단이시오 자서한 말을 좀 하시오.

겨여극난은 그 말대답을 아니 할 수가 업서서 자기의 부모가 자유 혼인하는 권리를 빼앗고 얼골도 한번 보지 못하든 사람의 게다가 허훈을 해서 오날 유육으로

성훈을 하라 가드가 중로에서 홀련이 집에서 보낸 전보를 바드 본즉 가지를 말고 오라는 뜻이라 그 사람이 선량한 사람이 못되야서 변이잇는가 짐작을 하고 성

포이 정거장까지 와서는 틈을 타서 도망한 일장을 말하고 쓰이르기를

나는 사람이 뜻차올가 겁이 나서 죽을 힘을 드해서 도망을 했건 이와 여기서 성포이가 올마나 되는지요

(마누라) 여기서 성포이시장을 가려하면 십여 리나 되는데 고랑이 오기 어려워 스스리로드

원래 이 집에는 늘근내외와 딸 하나 뿐인데 사나히는 밧갈고 엽편네는 길삼을 하며 전혀 농사로 업을 삼는 터인데 로인의 성명은 요내사탈(拗耐司脫)이드. 겨여

극난은 그 사람들의 동정과 말하는 것을 드러보니 극히 규모가 잇는 집이드. 모녀 두 사람이 서로 말을 하다가 마누라는 안으로 드러간드. 계집아가씨가 겨여극난을 향해서

고랑의 저와 갓흔 약질노 이 길은 밤에 멀리 오시노라 신고도 하섯슬터이요 모전바람과 찬서리를 마져서 얼골이 저처럼 파괴하게 되었소구료 나는 말을

선후가 업시 하지 마는 참어 업부고도 앓쳐 룬소

말을 예사지하고 눈물이 썩러 질듯하드. 겨여극난은 처음으로 보느라 인고로 말대답은 아니하고 잠々 하나 마음에는 감상하기를 마지 아니해서 감안이 해아리

기를  
저 계집아가씨가 참 드정하기도 하드  
계집아가씨는 쓰이어서

고랑의 말이 도망을 했드고 하나 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요. 설혹 사람이 뜻차 온드 할지라도 제가 엇지 할터이요 고랑은 걱정마시고 마음을 노시고 여

서 몇철을 게시드 가시오  
이렇게 말을 할적에 마누라가 밥을 가지고 나와서

고랑이 가끔 푸시겟소 찬은 업소마는 마음대로 좀 잡수시오  
겨여극난은 고맙드고 하며 비는 곱푸지안타고 사양에 말은 하나 실상은 비가 등



에 부터는 지라 밥을 반이나 먹고 또 가피 두굽보를 마시고나니 적이 정신을 체 리겟드 격여극논은 그모녀와 갖차앗드 잊흔날 일적이 이러나서 주인에게 고 무운것을 처사하고 가려고하나 주인이모녀는 한사하고 늦치아니하는고로 격 여극논은 그집에잇섯드 격여극논은 병으로 고통하든 남아지에 무음에근심하 고 풍한에 상한고로 병이 발작을해서 요내사람의집에서 알코잇섯드

매불리는 전차를빨니모라 성포이에를 당도하여보니 괴차는 임의떠나갓드 시 계를잡어내서본즉 일곱시나 되엿는데 괴차가 떠는지가 심오분동안이나 되얏 드 전차를 드시재촉해서 쫓차간드 별안간 정거장겻흐로서

매불리공은 잠간만 정지하시옵시오

매불리는 무슨연고인지 몰나서 전차를 정지하고섯드 또드르니 전차에 가시는이가우리주인이 아니시오잇가

매불리는드르니 분명한자괴집 하인의음성일드 급히못는드 너는 엿지해서 그리하는나

하인이 쫓차오며

주인에게서는 압흐로 쫓차가실것 업슴이드 묵한아가 여괴잇슴이드

〔매〕 네가 엿지아는나 격여극논고랑도 잇는나

〔하인〕 이말은 노이불랄선생이 하시는데 그고랑의말슴은 하지아니시고 드만

하시기를 너의주인이 전차로 오실터이나 여괴기대려 뵈옵고 말슴을하라고 하시오

〔매〕 노이불랄선생이 한말이야

〔하인〕 그가 묵한아의 뒤를따라가시며 주인이 오시거든 집으로가서 잇게되면 내가갈터이라고 하섯스니 주인께서는 집으로가서 계시면 오실터이올시다

〔매〕 오나 그리하면 짐으로도로가자

매불리는 전차를돌녀서 하인과갓치 짐으로도라와서 제역밥을 먹고나서 기대 린다 홀련문을열나는 소리가들닌다 매불리는 나가보니 노이불랄이다 손을잡 고

어디서 오시오 그리 그두사람은 엿지되얏소

〔노이〕 묵한아는 시방 어느려관에잇고 격여극논은 중로에서 도망을 히다구합 되다

〔매〕 오락윤에서 도망을 히다구 합든이잇가

〔노이〕 묵한아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엿든지 정거장에서 도망을 흘것인가보오

〔만〕 무슨싸닥으로 다라나다고 합든이잇가

〔노이〕 참정신업는 말도하오 격여극난이가 조괴집에서은 전보를보고 다라나 지아니하코 무엇하겻쇼



말이여괴이르러서는 노이불탈은 홀련감축훈바가 잇서서 말을다시 아니하얏다  
 [매] 인제는 엇지해야 좃갓소  
 (노이) 또생각을 해서봅시다  
 매불리는 걱정을한다

격여극난이가 어의로간것을 알슈가 잇셔야지  
 (노이) 널분련디에 어의로간것을 알슈잇소 내일다시 말할량으로 고만잡시다  
 매불리는 걱정과 한탄을하노라 괴운이 저상을하얏다

(노이) 남년간 정은 사람마다 잇는것이잇가 괴이할것은 아니나 격여극난은임  
 의 호구에를 버셔나왔는데 그대는 도로혀 걱정으로 지내는것을 알슈업소  
 그대가 명예두자를 이젓소구료나는 그대가 마음을노코 묵한아를 처치할  
 것이 요긴한것으로 생각하오 격여극난이는 내가 차져낼터이요

[매] 묵한아를 처치할것이 어려울것이 무엇이잇소 징거할것이 모다 여기잇  
 는데요

(노이) 묵한아는 괴회를알고 멀니갈것을 아지못할줄노 아오 그대와 갓치 전  
 차를세내서타고 석극가로가셔 그계집과 멀니피했다가 그대가 격여극난과  
 혼인을한지 일년이나 반년이 된후에 그대가 저의 정혼한 안해를 썬여서장  
 가를 드렸다고 고발을하게되면 관사에서 무슨징거를가치고 분명이쳐단을

하갓소 혼셔라하는것이 굿때에는 가짜가 될터이니 그대는 엇지하려하오  
 이말에는 매불리가 입이병々하고 눈이둥그래서 아모말도 못하다가

그렇게되면 엇더케한단말이요

(노이) 여보너 무급히 구지마오 일을하는법이 비밀이 아니하지못할것이요 내  
 가 내일할도리가 자연이잇소

잇흔날 노이불탈은 조반을먹고나셔 매불리다려

내가 먼저나가셔 사귀을보아 쥬션을할터이니 긴한말 한마디를 잇지말고  
 잇다가 내가 소식을 업거든 그대는 경동치말고 잇소 저전차는 하인을래여  
 서 돌려보내게하오

매불리는 그말대로 하마고 대답을하얏다 노이불탈은 문밖그로 나아갓다

매불리는 하인으로 전차를타고 석극가로도라가셔 전차형리에 전하고 즉시고  
 모의집에가셔 전후말을 자세전송고 이뒤에는 소식이잇는대로 전보로 흥기하  
 겠다고 하라하얏다 하인을 보낸뒤에 매불리는 집에서 기대리고 잇기를 반일  
 이나되나 소식이 업슴으로 조조해서 견대지못하며 오정때가 되엿다 홀련 문  
 을열나는 소리가 들린다 매불리는 급히나가 문을열고보나 아지못하는사람이  
 다 그사람이 못는말이

여괴가 매불리의 집이온잇가



[매] 그러하오

그사람이 전보한장을 준다 매불리는 바다보니 고모부가 보낸것인데 격여극 난의게서 온전보를본즉 언의곳에서 병이대단하니 집사람을보내서 대려가라고 하얏스니 너는 이전보를보고 쌀니가서 보라고 한것이다 매불리는보고서 알앗슴이다

말을하면서 도라다보니 그사람은 밭서가고엿다 매불리는 돈집원이나가지고 방문을장그고 마차를불너서라고 전보에말한곳으로가니 두시동안은 되야서이 르렀다 그집을 무러서 차지려해서 언의집문간에서 드르니 사람의소리가 들니는데

분명한 내안해를 너의가 엿지해셔 감추고 아니되는나

매불리는 그말을 슈상이여여셔 곳드러가보니 다른사람이 아니라 묵한아가한 낮로인과 늘근마누라 몇사람과 싸호는데 괴세가 흉악해셔 칠듯하다 매불리는 묵한아를보고 분이나셔 드러가며 소리를크게한다

이놈아 너는 쯤여괴와셔 누구를속이려 하는나

묵한아는 매불리를보고 놀나나 거짓우스며

당신은 엿지해셔 여괴를오섯소

[매] 나는 너를보려고 차져왔다

묵한아는 간신이하는말노

당신은 이런일보섯소 내가 안해를대리고 윤육으로 성친하라 가는것을저 사람드리 감추고 아니되면셔 도로혀 언짜는사람이라고.....

매불리는 말이맛치기를 기대리지 아니하고

너의 안해가 엿지해셔 이집에를 왔단말이나 아마 석극가 우편국 뒤황장에 잇는계집말이나

[묵] 당신은 아지못한가보오 내가 격여극난과 새로정혼을하고 갖치유육으로가셔 성친하려 하는것이요

[매] 내가 엿지해셔물나 네가 묘한계교로 매불리를 석극가에서 내여쫓고윤 이히 격여극난의 부모를 썩여셔 장가를 들너하나보다 마는 너의안해가 윤육가셔 성친하는것을 용납지 아닐것갓다 내가너다려 무러볼말이있다 네가 내명예를 손상하고 너자를유인해셔 장내에 완호지물을 맨들고자하야 하나를 먼저장가들고 쯤하나를 재취하려하니 그것이 무슨일이나

[묵] 네가 네일을 잘못하고 나를혐의하는나 내가 엿지해셔 안해가 들이란 말이나

매불리는 괴가맥혀 냉소한다

네가 억지로 변명을하려나나 날다려 징거할것을 뵈라하는말이나



죽기에셔 혼셔 지를 집어내셔 되며

너는 이것을보아라 무슨물건이나

묵한아는보고 놀나셔 감안이생각이다

엇지해셔 저것이 저사람의손에 드러갓나

다라드러셔 빼스려한다 매불리는 두손으로잡고 늦치아니한다 잇때에 요내사  
랄파동리녀자몇사람이 보고 분이나셔

이놈아 청련백일에 야만의행동을 하는나

여러시 달녀드러셔 매불리를것드러셔 묵한아를 대적하러하나 이사람드리엇  
지 묵한아의 젖수가되랴 묵한아는 여러사람이 달녀드는것을 보더니 소리를

지르며 쥬먹으로치고 발길노차기를 호랑이가 양의뉘에 드러간것갓다 여러사  
람이 묵한아의 흉악한것을보고 모다물너섯다 묵한아는 매불리를잡고

너는 이혼셔로 나를쥬게되면 피차에 아모일도 업슬것이다

매불리가 비록약하나 잇때를당해셔 죽기로써 쥬지아니한다 묵한아는 저사람  
드리가셔여러사람을 불너오게되면 제가 다라날수가 업슬가해서 쥬먹으로매

불리의등을친다 매불리는 알타가 새로나온사람이라 몸이건강치못해서 한번  
맛고견대지 못할지음에 다만보건대 밧그로 한사람이 다라들며 소리를지른다

나는 밧서 네가여귀를와서 이러할것을 알았다

이사람은 누구인야하면 노이불탈이다 락불리는보고 소리를지른다

급히와셔 이야만놈을 쳐치호오

묵한아는 감안이싱각호기를

이놈드리 원래 혼동가로구나

정히 대적기를싱각호는때에 밧서 두손이 노이불탈의게 잡힌비되야셔 능히움  
작이지못하고 머리만도보며

너는 엇지해셔 저놈을 돌보아셔 나를차려나나

(노이)네가 나를누구로알고 호는말이나

(묵) 네가 나의우편국에 서기로잇지 아니호얏나나

(노이)나말이나 내일혼은 노이불탈이다 저사람과는 결의한형데일다닌가가  
장깃벼호는것는 불공평호 야만놈을 치기조아호다 너갓혼물건을 너가엇지

노깃나나 네가혼일을 나를속이려하나나 네가 위조편지를호고 비밀혼일을  
호것이 조호나 내가 너다러 물을것이 황장애잇는 계집을 내가 엇지속여셔

감쥬어 두엇는나

묵한아는 무슨말을호랴 잠々호고 듯기만호다

(노이)네가 말을아니호려나나 내가너를 혼변집어셔 던지게되면 늑장이될나  
묵한아가 소리를지른다



너는 엇지히셔 야만의행동을 하는나  
(노이) 내가 야만의행동이 아니라 가장야만을 치기를 조야한다 네가도로혀날  
다려야만이라고하는나

말을하고서 뽀뽀뽀뽀를 싹뽀치며  
이놈 그리히도 말을아니홀터이야

뽀뽀뽀뽀를 싹뽀치다 뽀뽀뽀뽀는 잇때에 생각이 삼십륙개가 상척이라하나 버셔  
나셔 다라날슈가업다 아리요란호노란이 동리사람드리 미러드러와셔 집안이  
뽀뽀하다 그중에 두로인이 무슨연고로 이리하는것을 못는다 미블리는 전후  
일을 일々히 말하얏다 뽀뽀뽀뽀도 듯기를 명백히하얏다 원래 노이불탈이가셔  
극가로 온후로 뽀뽀뽀의 천호천구를 소기히셔 우편국 서괴로 천거하야 사무  
를보면서 뽀뽀뽀의 사실을 정탐하고 또호셔사지 차져가진것이다 이사람의슈  
단이 모호한것이 교사의 모양을 한것도 노이불탈이요 서괴노릇을 한것도 노이  
불탈이다 뽀뽀뽀가 성포이 정거장에서 서괴를 만난것도 다른사람이아니다  
노이불탈은 미블리의집에서 나와셔 미블리의 일홈으로 겨여극난의 부모의게  
전보하기를 겨여극난이가 도망을히셔 어디로 간것을 아지못하니 만약 겨여  
극난이가 전보를 하거든 빨리 내게로 전보를하라고 하얏섯다 과연 이전보가  
가자 겨여극난의게셔 전보가 또왔다 겨여극난의부모는 그전보를보고서 겨여

극난이가 잇는곳 디명을 분명이 가라쳐셔 전보를 미블리의게로 한것이다 노  
이불탈이는 한편으로 사람을식여 전보를 미블리의게로보내고 한편으로는 자  
괴가 괴관으로가셔 뽀뽀뽀뽀를보고 겨여극난이가 썩잇는곳을 탐지히셔 알얏  
다고 말하얏다 그리히셔 뽀뽀뽀가 요내사람의집으로 차져왔고 노이불탈이도  
뽀뽀뽀의 뒤를따라왔섯다 그것치아니하면 엇지이갓치 공묘히 맛났스라 뽀뽀  
아는 미블리가 두로인의게 말하는것을 듯고 우편국 슈지상자에서 자괴가 위  
조편지로호른것을 노이불탈의 슈중에 드러간것과 또자괴를따라가셔 황장에잇  
는 계집분명이 안것을 그제야 알얏다 스스로헤아리기를

내죄가 죽기를 면키어렵고 노이불탈은 잡고놓치아니며 여러사람드른 집안  
에 가득이 드러섯스죽 다라나라다라날슈도 업시되얏다

[뽀] 너는 나를 이렛케핍박할것이 아니다 그계집이 나를고발도 홀슈업는연  
고갓있다 네가 나를놓케되면 말하러호다

노이불탈은 제갓엇지하지 못호것을알고 잡고는것을 노얏다 뽀뽀뽀는 이러셔며  
인하야관을빼셔 자문을하얏다 여러사람은 급히말니려 하얏스나 밋지못하얏  
다 이것은 런리가 소스흠으로 적악을 과히하면 런망을 버셔나지 못하는것이  
다 노이불탈은 뽀뽀뽀가 죽은것을보고  
저는 도로혀 편하게되얏다



미블리다려

나는 경찰석에 가서 스유를 말고 검시를 하게 하겠소

말을 하고 나간다 잇때에 미블리는 데일 요긴한일이 적여극논을 보려하는 것이 다 요내사랄다려

우리가 대에와서 이갓치 요란이 혼것이 심히 불안함이 다 장내에 무엇으로 갑푸릿가

(요내) 별말마시고 안지시오

[미] 나는 그고랑을 좀보고 무슨병인지 알고져하니 로인께서는 허락하시겠 슴잇가

(요내) 그리하지요

미블리를대리고 방문밖게이르러서

고랑이 시방은 엇더하오

안에서대답하기를

지금은 잠이 드렸소

(요내) 당신은 경동치마시고 잠간만 밖게안지섯소

미블리는 무엇이라고 할수업서 밧그로나와서 혼참안져서

노이불탈이는 언제나 오려나

이갓치싱각을 하는동안에 밧그로 호스람이 드러오다가 미블리를보고서

당신은 엇지혀서 여괴를와게시오

미블리는보니 이사람은 적여극논의 집하인이드

네가 고랑을 대리라왔는나

(하인)우리집에서 전보를보시고 나를전차를래여 보닛섯소 엇지혀서 유혹으

로 가지아니하고 이시골집으로와셔 병을드렸소

[미]너는 한담은고만두고 네가하라온 일이나히라

(하인)고랑이 어드게심잇가

[미]고랑은 병으로혀서 누엇다 내가 전차를래여서 대려가면 오날노 집에를 갈터이다 나는 여괴서 일을다보고 니일이나 괴츠를라고 가려혼다

하인으로 요니스랄과 셔로보라하고 연고를설명하얏다

(요내)내 마음에는 고랑이가는것이 조치못하지마는 괴위 전차를타고왔슨 즉

오날 도라가셔 부모제셔 의려지망을 면케하시오

말을하고 안으로드러가셔 한층잇다가나오며

우리살이 고랑을 극히사랑혀서 가는것이 마음이 노이지안는다하면서 그집

에싸지 갓치가갯다하오

미블리는 깃버하면셔



춤조흔말이요 우리고모께서 을마썸 고맙게아실저 모로갓습이다  
 요닉사람은 천만에말々나훈다 계집아희와 마누라가 교의에다가 격여극난을  
 태와들고 나오는데 격여극난의 얼굴이 불끈갓고 눈을감았는데 형용이 과  
 리히셔 놀날만하게되였다 여럿이붓들고 전차를래일새에 노이불달이가 경찰  
 과 갖치왔다 매불리는 격여극난의집에서 하인이 대리라운 말을하얏다 노이  
 불달은 경찰을대해셔

이사람이 격여극난인데 저다러 무러불말이 잇겟소  
 (경찰)그러하지요

리불리는 격여극난을 부르기를 여러번을하나 혼々해셔 대답아업 다계집아희  
 가 하는말이

이가 열피가 심흠이다 오날일직 이이러나셔부터 이모양이올시다

(경찰)그리할것이업소 아모랏든지 징거만 충분하면 고만이요 말을하고 노이  
 불달과 갖치 드러온다 매불리는 하인다러

그러면 너는어서 도라가거라

또계집아희를대해셔

슈고 만히하시오

노이불달은 경찰과 갖치 드러와셔 혼셔와 편지며 묵한아의 시신을 낫々치검

시하고나셔 염습게하니 날이발셔 저무렸스매 경찰은 도라갓다 노이불달과 리  
 불리는 요닉사람을 작별하며 일빚금으로 슈고한것을 사례하나 요닉사람은밖  
 지아나훈다 이후로 요내사람은 천척과 일반으로 왕니하얏다 두사람은 요닉  
 사람을작별하고 마차를라고 집으로도라가니 하인이보고 못는다

고랑은 도로갓습잇가 병이엇더해요

(매) 도로갓스나 병은대단이중하다

(하인)전차는 전차히리로갓다두고 고랑의댁에가셔 자셔한말하고왔습이다  
 매불리는 잘하얏다하고 방으로드러가안졌드

(노이)당신은 내일셔극가로서오 나는짐을떠난지가 한달이지났스니 짐으로  
 가 대강슈습을해가지고 아라스로 유람을갈러이요

(리) 그러하면 우리가 기리작별이요구료 니가 고모의집에를 가려하는것은불  
 파해셔 표마의 병을보라가는것인즉 니가 당신의뒤를 곳쫓차가셔 떠나기전  
 몇칠이든지 이야기나히셔 션々지나 덜하게하러하오

(노이)피차에 션々은하오마는 그리홀것업소 나는 집에만 단여서 지체아니하  
 고 곳떠날러이니 고랑의병이나 잘조섭하게하고 오지마시오

계역밤을먹고나셔 편이자고이러나서 피차에 자전거를라고 기차정거장으로가  
 서 표를사가지고 기대리기를일찍이나되야셔 기차가온드 곳차를라고 서극가



에 이르러서 노이불탈은 작별하고 갔드 미불리는 고모의 집으로 갔드 다만보나  
고모가 나오드가 보고  
너는 을마나 신고를 하얏느냐 드르니 그놈이 제가 자진을 하얏드하니 그후  
에는 드른일은 업섯느냐

[미] 경찰이와서 검사를 하고 징거가 중분함으로 다른말은 아니하고 엄습하  
라고 하얏습이다

[고모] 너의 누의가 병이 중해서 어제약을 먹고 밤은 후로는 적이 난듯해서 자는  
것갓되 자지는 못하다가 오날식전에 담을 만히 토하고 초도가 잇는 모양이러니  
시방은 잠이 드릿스니 너는 드러가서 보아라

미불리는 대답을 하고 겨여극난이 누은방으로 드러갔다 방장을 너리고 조용하  
다 상압호로 가서 두어번 부르나 대답은 업시 번조호듯하다 맛참고모가 드러오  
며 겨여극난다려

미불리 오라범이 너를 보라 여피왔다

겨여극난이가 눈을 깨우쳐셔본다 저의 모친이 또한번 부르니까 그제야 알아듯  
는 모양으로 몸을 운동히쳐 이려나려한다 저의 모친은 붓드러안쳤다 겨여극난  
은 숨찬소리로

내가 목이 말나요

(모친) 향인로를 갔다가 주랴

겨여극난은 대답을 하미 저의 모친은 나아갔다 잇때에 미불리는 무엇을 싱각  
하는지 감안이 안쳤다 겨여극난은 머리를 쓰덕인다 그모양이 미불리다려 갓  
가이오라는 것갓다 매불리는 갓가이갓다 겨여극난 손을 잡으려는 모양갓다 매  
불리는 겨여극난의 손을 잡고 보았다 홀런 겨여극난의 얼굴빛이 변함며 두손  
이 어름갓치차고 눈알이 색뒤로 올라가더니 뒤로잡바진다 매불리는 급히붓  
들면서 부른다 저의 모친은 부르는 소리를 듯고 급히드러오며 그모양을 보고 놀  
나서 엇지할줄을 모르며 부르기도하고 주무르기도 하기를 반일이나 해서 제  
우애여났다 겨여극난은 저의 모친의 손을 잡고 우는데 진쥬갓흔 눈물이 비오듯  
한다 저모양으로 우는 것을 보고 모다붓들고 우렷다 울기를 참을 하다가 저의  
모친은 말한다

너는 고만긋치고 병을 조섬해라 네몸에 삼난것을 보아라

말을 하면서 눈물이 쪼려진다 겨여극난은 울음을 억지로 참는다

[매] 누의가 전후사실을 다알았소

[모친] 저애가 도라와서 혼침하기로혀서 저다려 말한일이 업다

[매] 그러하면 묵한아가 위조편지한것과 혼쳐일절을 모다아지 못헛갓습이  
다그려 내일홈으로 누의의게 보닐편지가 내가 한것이 아니라 묵한아가 위



조편지를히쳐 보낸것이요 또누의가 슈삼차나 내게 편지한것은 도모저모 지는못하였고 근일에야 알았소

격여극난은듯더니못는다  
그말이 엇지하는말이요 나는 분명이알슈가업소 엇지히쳐 묵한아가 편지를 위조히단말이요

매불리는 전후사실을 낮치말하얏다 격여극난은 삼을처음으로 셤듯이 눈을 감고 생각을하니 마음이 시원히쳐 무거운짐을 버셔버린것갓다

(모친)너는 과히심녀를 하지마라  
(격여)나는 시방몸에 삼이나더니 정신이 색긋하고 비가대단이곱과요

(모친)런자죽을 먹으려는나  
격여극난은 좃타하니 저의모친은 나가서 하인다러 죽을썩라한다 매불리는격여극난다러

누의는 이후로는 마음을노코 잇스우  
격여극난은 머리를끄덕인다 잇때에 매불리는 마음속에 천루정사가 격여극난의 몸을싸고 도라와쳐 다시 제몸을 돌나싼다 넷말에 마음병에는 마음약을써

야한다 할일다 이리케 한뒤로 격여극난의 병이 부지중에 나아졌다  
석극가 경찰서에는 홀련이 한낫괴괴한일이 낫다 이것은 한낫너즈가 조살을

하얏는데 친속도업고 재물도 요동함이업다 그녀즈의 몸을뒤여보니 한봉글이 잇는데 조기가 자살하는 사실을명백히 말을하얏스나 징거할사람이 업슴으로 진가를알수가업다 이너즈는 엇더한사람인고하니 묵한아의안히일다 이사람은 우편국뒤 황장에잇든 녀즈인데 제사정을 말한것일다

나는우편국 총사사 묵한아의 안히니 유육사람으로 팔년전에 묵한아와 유육셔 결혼을히쳐 곳때에는 남편을두인한양으로 알앗더니 시집간뒤로 그사람의마음이 변흔것이 나의출신이 미천히쳐 저의배필이 되지못하겠스니 다시장가를 들겟다하고 다른사람이 저의안히가 잇는것을 아지못하게 할양으로 집을 궁벽흔곳에 두엇스며 나를그집에다가 가두어두고하인도 부리지 아니하며 문에문령도 업시히쳐 미양 제가집에를오면 돌을던져 암호을하얏스며 또한가지 독한일은 남의자유를 빼쳐서 감히반대를못하도록하니 이러흐독물을말할슈업스며 내가비록죽으나 오히려 붓그러운것은 이제 제가나를버리고가쳐 다른사람의게 장가를들나 간것이오 혼셔도 제가가져셔 원통한것을 호소할도리가 업기로 이한장글을써쳐 묵한아의 적악흔것을 세계에 전포하려하나이다

잇때에 이일을 하나히 열의게 전하고 열이 빅의게 전히쳐 신문에 명백히 기재되엿다 미불리는 이말을듯고 경찰서로가쳐 묵한아의 전후일을 낮치말



하얏슴으로 일이 타협이 되었다. 겨여극논은 미블리와 결혼을 허쳐 두사람의 위  
을 일운 연후에 은이의 정형은 스템 이 생각을 하도 알 것인 고로 두번 말하지  
아니 하옵이다

소설의 협의 아종

- 日鮮 對譯 書翰文 習全 一冊 金七十五錢
- 書翰文 大要 全一冊 金二十五錢
- 腹大成 全一冊 金一圓卅錢
- 雪中松 全一冊 金四十錢
- 短編 古今奇談集 全一冊 金廿五錢
- 楚漢 鴻門宴 全一冊 金三十錢
- 古代 蘇大成傳 全一冊 金十五錢
- 新小 三快亭 全一冊 金三十五錢
- 古代 增修春香傳 全一冊 金三十五錢
- 古代 勸善奇談 全一冊 金三十五錢
- 忠義 劉烈忠傳 全一冊 金三十錢
- 陰陽 三台星 全一冊 金二十錢
- 星世 鏡光亭 全一冊 金三十錢
- 箭孝 松竹 全一冊 金二十五錢
- 言情 芙蓉潭 全一冊 金二十五錢
- 婚事 美人圖 全一冊 金二十錢
- 愛情 鳳凰琴 全一冊 金三十五錢
- 古代 小說 玉樓夢 全四冊 金二圓
- 理想 金剛聚遊 全一冊 金二十五錢
- 愛情 玉麟夢 全二冊 金九十錢
- 哀情 玉鸞聘 全一冊 金二十五錢

- 滑稽 小說 快活全 一冊 金四十錢
- 新奇 小說 快活全 一冊 金四十錢
- 無雙 三國志 全五冊 金二圓
- 忠義 小說 金大風傳 全一冊 金三十錢
- 軍事 小說 孫龐 全一冊 金卅錢
- 歷史 小說 隨唐演 全 冊 金卅錢
- 鮮漢 雙文 四廟記 全 冊 金五十錢
- 感義 小說 江上 全 冊 金五十錢
- 金山 寺夢遊錄 全一冊 金二十錢
- 古代 小說 雙美奇遊 全一冊 金卅錢
- 悲劇 小說 百年恨 全一冊 金卅錢

- 義俠 小說 錦囊 二山 全二冊 金四十五錢
- 寫情 小說 秋月色 全一冊 金二十五錢
- 新小 說 沙村夢 全一冊 金四十五錢
- 懸吐 玉麟夢 全二冊 金一圓卅錢
- 海王 星洋裝 全一冊 金三圓卅錢
- 同半 裝 全二冊 金三圓
- 文西 漢演義 全四冊 金一圓卅錢
- 古代 小說 花玉雙奇 全二冊 金五十錢
- 新小 說 長恨夢 全三冊 金一圓卅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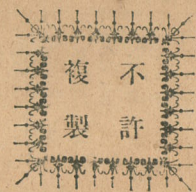
- 古代 打虎武松 全一冊 金三十錢
- 古代 牛郎이 이야기 全一冊 金卅錢
- 悲劇 洞庭湖 全一冊 金四十錢
- 悲劇 霍娘哀史 全一冊 金三十錢
- 新小 說 紅淚池 全一冊 金五十錢
- 사랑의 우물 全一冊 金八十錢
- 구멍돌 全一冊 金七十錢
- 어대모가나 全一冊 金五十錢
- 奇聞 美談 青野藥 全 冊 金卅五錢

大正十五年一月十五日 印刷  
大正十五年一月二十日 發行

發行

의협의아

定價三十錢



發

行

所

慶南大邱府本町通

滙東書館支店

發者 兼者 高裕相  
 發行 者 者 者 者  
 印刷 者 者 者 者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七番地  
 京城府堅志洞三十二番地  
 京城府堅志洞三十二番地  
 漢城圖書株式會社  
 滙東書館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七番地  
 振替口座 京城七一二番地  
 電話 光化門一五五八番





|                  |                    |                  |                  |
|------------------|--------------------|------------------|------------------|
| 蒙學二千字日紙版全一册五十錢   | 東方歷史全一册 洋裝二册裝一册五十錢 | 朝鮮料理法 全一册 全五十錢   | 醫門寶鑑 全一册 金二圓     |
| 訓蒙輯要前名童蒙先一册金三十錢  | 李廷胤及丙子亂全一册金三十五錢    | 新編道遊書 全一册 金八十錢   | 一見能解唐畫周易全一册金一圓   |
| 增補註解明心寶鑑全一册金卅錢   | 朝鮮年表 全一册 金四十錢      | 朝遊覽歌 全一册 金四十錢    | 新校訂訂方藥全一册 金一圓    |
| 新編圖集 全一册 金五十錢    | 獨習書法真訣全一册 金八十錢     | 朝鮮文明史 全一册 金一圓    | 增補家範寶鑑全一册 金五十錢   |
| 新訂習兒法 全一册 金三十錢   | 現行四禮儀節全一册 金四十五錢    | 同 全一册 金二圓        | 增補洪烟真訣全一册 金九十錢   |
| 學徒指南 全一册 金三十五錢   | 懸吐三國詩 全五册 金四圓      | 醫藥指南 全一册 金三十五錢   | 漢鮮文士草秘訣全一册 金三十五錢 |
| 伯林巴里 全一册 金三十五錢   | 海關圖竹譜 全二册 金四圓      | 詩學韻鏡 全五册 金三圓     | 西藥要覽 全一册 金六十錢    |
| 懸吐六箱直解全一册 金四十錢   | 醫門須知 全一册 金三十錢      | 東詩精選 全一册 金六十錢    | 醫書玉篇 全一册 金六十錢    |
| 懸吐孫武子直解全一册 金三十錢  | 耽羅紀年 全一册 金五十錢      | 普通文字集 全一册 金五十錢   | 辟穀秘方 全一册 金二十錢    |
| 增補海東詩選全一册 金三十錢   | 新編道經 全一册 金三十五錢     | 朱子家訓 全一册 金三十錢    | 永樂醫文相法全一册 金五十錢   |
| 懸吐淑香傳 全一册 金三十五錢  | 通鑑詳解 全十五册 金四圓      | 秘書三種 全一册 金三十錢    | 百問醫文相法全一册 金五十錢   |
| 精選日語獨學全一册 金六十錢   | 懸吐古文彙集全一册 金一圓      | 英語獨學 全一册 金五十錢    | 增補圖字典釋全一册 金一圓    |
| 漢日鮮作文千字全一册 金三十錢  | 吐舌文前集 全一册 金七十錢     | 朝鮮語文法提要上全一册 金六十錢 | 訂附圖字典釋全一册 金一圓    |
| 無師自通英語獨學全一册 金六十錢 | 史前集 全三册 金一圓        | 化學問答詳解全一册 金五十錢   | 諺文片紙法 全一册 金三十錢   |
| 刪正五倫行實全一册 金五十錢   | 歐羅巴精算學全一册 金五十錢     | 華語教範 全一册 金六十錢    | 日鮮高等流行尺牘全一册 金一圓  |
| 新編動物學 全一册 金四十錢   | 歐羅巴精算學全一册 金五十錢     | 華語正讀 全一册 金三十錢    | 新纂諺文家範簡牘全一册 金一圓  |
| 農學大要 全一册 金三十錢    | 大韓筆論習字帖 全一册 金四圓    | 南華通讀 全一册 金一圓     | 最新式尺牘 全一册 金四十錢   |
| 養親新法 全一册 金二十錢    | 模範中等唱歌全一册 金五十錢     | 中華法學經濟要義全一册 金五錢  | 增補註解尺牘全一册 金三十錢   |
| 桐樹培養法 全一册 金十錢    | 新撰百話 全一册 金六十錢      | 速修 全一册 金十五錢      | 新式無雙尺牘全一册 金五十錢   |
| 中等算學 全二册 金一圓     | 懸吐謝氏南征記全一册 金三十錢    | 自修日語讀本全一册 金七十錢   | 增補中法全尺牘全一册 金四十錢  |
| 新刊七書集註全七册 金一圓    | 賣國奴身 全一册 金五十錢      | 修正朝鮮文法全一册 金七十錢   | 增補學情帖 全三册 金一圓    |
| 小學集註 全二册 金一圓     | 原本孟子集註全二册 金一圓      | 修正朝鮮文法全一册 金七十錢   | 增補學情帖 全三册 金一圓    |
| 蔬菜栽培全書全一册 金五十錢   | 辨疑孟子集註全二册 金一圓      | 修正朝鮮文法全一册 金七十錢   | 增補學情帖 全三册 金一圓    |
| 新訂初等語文全一册 金三十錢   | 辨疑孟子集註全二册 金一圓      | 修正朝鮮文法全一册 金七十錢   | 增補學情帖 全三册 金一圓    |
| 史記五選 全一册 金五十錢    | 漢日鮮文新玉齋全一册 金一圓     | 修正朝鮮文法全一册 金七十錢   | 增補學情帖 全三册 金一圓    |
| 哀世凱實記 全一册 金四十錢   | 漢日鮮文新玉齋全一册 金一圓     | 修正朝鮮文法全一册 金七十錢   | 增補學情帖 全三册 金一圓    |